

배우자에 아들에...여야 후보 '가족 리스크' 대선판 흔든다

이재명 아들 불법 도박 의혹

윤석열 부인 허위 이력 논란

여야 사태 수습 속 비판 수위 높여

'공정함' 2030 민심 예측 불허

여야 대통령 후보의 '가족 리스크'가 대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16일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아들의 도박 의혹까지 불거졌다.

양측은 모두 사과의 메시지를 내놓으며 사태 수습에 나서는 동시에 상대측 가족 논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공정함'을 요구하는 2030 청년민심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할지는 예측 불허다.

이날 한 언론은 이 후보 장남 이모(29)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2019년 1월부터 2020년 7월 사이에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글 200여개를 근거로 불법 도박 의혹을 제기했다. 게시물 중에는 온라인 포커머니 구매·판매와 관련된 글, 수도권 오프라인 도박장 방문 후기 등이 포함됐다.

이 후보는 오전 8시 51분 입장문을 내고 "아버지로써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고 밝혔다. 아들에 대한 치료까지 언급하며 의혹이 제기된 사실관계를 사실상 인정했다. 이어 9시 30분께 당사에서 사회대선위원회 출범식을 마친 뒤에는 다시 한번 직접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국민의힘 역시 김건희씨의 신상 논란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2007년 수원여대에 제출한 교수 초빙 지원서에 기재한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대상 수상이력이 허위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김씨가 YTN 취재진에게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다. 그것도 죄라면 죄"라고 정제되지 못한 해명을 내놨다가 되레 논란을 키웠다. 선대위 차원에서 뒤늦게 "공동 수상한 점을 이력서에 쓸 때 '수상'이라고 쓴 것"이라며 그 자체로 허위로 볼 수 없다는 해명을 내놨지만, 발언의 여파는 상당했다. 결국 김씨는 전날 연합뉴스 기사와 만나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국민들께서 불편함과 피로감을 느끼실 수 있어 사과드립니다"고 밝혔다.

김씨가 입을 열면서 윤 후보가 정치 행보를 시작한 이후 꾸준히 제기됐던 김씨의 신상 의혹에도 다시 불이 붙었다. 과거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했다는 소위 '줄리 의혹'부터 일각의 '성형 지적'까지 일곱에 올랐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26분간 통화에서 "줄리라고 오해하고 있는데 나가면 (남편인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에) 피해가 되지 않을까, 나가야 하는지,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또 "성형했다. 쌍꺼풀이 원래 있었는데 짝짝이여서 대학교 때 삼촌 친구 병원에서 재건 수술을 했다" 등의 발언이 전해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후보 가족 리스크가 불거지는 상황에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이번 대선의 캐스팅보트로 불리는 2030세대 청년층의 민심과도 직결될 수 있어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보도문 게시물 중에도 20대 사회 초년생인 이 후보 아들이 인턴을 때려치우겠다고 하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시대준비위원회 사무실을 나서며 취재진의 부인 김건희 씨 '허위 이력' 논란 관련 질문에 특별한 답변을 하지 않고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나 스스로 '도박꾼'으로 칭하는 등 청년층의 민심을 건드릴 만한 소재가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김씨의 이력서 조작 의혹은 뼈아픈 대목이다. 윤 후보가 총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표창장

위조·입시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만큼 '내로남불'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윤 후보가 내세우는 '공정과 상식' 가치에도 의문 부호가 붙는다는 것이다.

양측은 상대 후보 가족의 문제를 더 크게 부각하

며 상황을 돌파하려는 모습이다. 이 후보가 이날 발빠르게 사과 입장을 표명한 것은 역풍을 차단하는 동시에 김씨 의혹을 여전히 감싸는 윤 후보의 모습과 대비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이재명 "아들 도박 형사처벌 사유 된다면 책임"

윤석열 "부인 허위경력 의혹 국민 비판 수용"

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청와대 거둬 반대에 진통

"아버로써 아들과 머리 숙여 사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6일 아들의 불법 도박 의혹과 관련, "형사 처벌 사유가 된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고 당연히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된 인터넷 언론사와 합동 인터뷰에서 '장남의 불법 도박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질문에 "어떤 책임이라도 다 지겠다고 (이미) 말씀드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참석한 언론사들이 보도했다.

그는 가족 검증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운명을 책임지는 사람을 국민이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에게는 안타까운 일이라도 무한 검증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아들에 추가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는 "지금까지 사실도 매우 놀라웠다"면서 "이거는 작년 7월부터는 안 했다고 하는데 그 외에도 혹시 뭐가 있는지 저희도 나름 스크린을 하는데 지금 추가로 애

기할 만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앞서 이날 아들이 불법 도박을 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제 아들의 못한 행동에 대해 실망하셨을 분들께 아버지로서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며 사과했다.

이 후보는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놓고 당정 간 이견 및 당내 일부 반대 의견에 대해 "양도세 문제는 당내에서도 이견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정부의 입장은 반대인 것 같다"라면서 "양도세 중과의 단계적, 한시적 감면은 세금 정책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공급 정책으로서 한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를 완화하는 것은 양도세 강화의 기본 흐름에 반한다는 생각 때문에 (정부 등에서) 반대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저는 정책 담당자의 일관성이 중요한 가치이면서도 그것보다 당면한 현실에 국민의 요구 또는 현실적 문제 해결에 더 주력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견들이 정리되지 않았지만, 주요 당 지도부와는 교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내년 재보선 무궁천 문제에 대해 "당내 대선 후보로서 제 입장은 최종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선대위 차원 좋은 방법 고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6일 부인 김건희 씨가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 전날 사과의 뜻을 밝힌 것에 대해 "나 자신이나 내 처(아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 비판을 겸허하게 다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과에 공식과 비공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사과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게 있을 때는 국민에 대해 이길 수 없는 것 아닌가. 과도하고 부당한 공세라고 하면 팩트체크를 해도, 국민들께서 미흡하다고 생각할 때는 다 수용하고 100%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상대방에서 하는 과도한 공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진상을 국민들도 아셔야 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팩트체크는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사과 입장을 밝힌 김씨의 언급에 거듭 공감의 뜻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별도의 공식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냐는 일각의 주장에 선을 그은 것으로도 보인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무조건 사과를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우선 팩트 확인부터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당 안팎에선 선대위 차원의 공식 사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스스로가 사과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일단 본인 이 어떻게, 어떤 형식의 사과를 할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했다.

'사과가 불충분했다는 지적이 있다'는 말에는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과가 나오는데 기다려보라고 했다."

선대위 차원의 공식 사과 여부에 대해서 "선대위가 무슨 개인에 대한 사과를 따로 할 수가 없다"면서도 "선대위 차원에서도 좋은 방법을 택하려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인 이수정 경기도 교수도 CBS 라디오에서 "윤 후보께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신다고 오늘 아침 뉴스가 나왔습니다"면서 "그것은 아마 오늘내일 중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아마 사과 틀림없이 하실 거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밀어붙이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유예' 정책이 여권 내 반발에 직면하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다음 주 의원총회를 열고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지만 적절한 대안을 찾지는 미지수다.

청와대 이호승 정책실장은 16일 MBC 라디오에서 "주택시장 상황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전환점이라 다주택자 양도세 같은, 근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라며 "자금은 시장 안정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전면 부정이라는 입장과 함께 대안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다주택자들에게 기회를 한번 줘야하며 징벌적 세제만 갖고 얘기하는 보다는 포용적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 후보는 안팎의 이견을 인정하면서도 정책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미 '전국민 재난지원금' 정책을 철회한 이 후보로서는 또다시 후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연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상가매매(상무지구)	장성 토지(매매 분양)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p>중심상업지역 6층, 7층 (총분양 140평) 시세 -> 9억 급매가 -> 5억8천 (보 3천, 월 300만, 용 3억5천) (사무실 리모델링합,빠,유흥,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010-6670-9800</p>	<p>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전원주택,물류창고,주말농장,별장,투자적합] 010-6670-9800</p>	<p>특수경매전문(유치권, 법지, 지분) ① 기초반, 실전 (기초이론,실전) ② 중급반, 실전(중급이론,실전) ③ 고급 특수반 (유치권,법지,지분,엔피엘전문) ④ 전문반 모집(직업가능,수익가능) ·전문반무료제공- 책상, 컴퓨터 제공,매주1회물건스터디</p> <table border="1"> <tr> <td>광주</td> <td>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감정가 8억3천 -> 3억7천 (12/21) 남구 월산동(주택)▶감정가 3억5천 -> 2억 (12/21) 서구 쌍촌동(아파트)▶감정가 2억5천 -> 1억1천 (12/21) 북구 두암동(상가건물)▶감정가 4억2천 -> 2억9천 (12/29) 광산구 삼거동(임야)▶감정가 3억9천 -> 2억7천 (12/29) 서구 농성동(근린주택)▶감정가 8억1천 -> 4억5천 (1/12) 동구 계림동(근린주택)▶감정가 6억 -> 4억2천 (1/12)</td> </tr> <tr> <td>전남</td> <td>목포시 상동(잡종지)▶ 감정가19억 -> 8억5천 (12/13)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감정가 2억1천 -> 7천6백 (12/16) 무안군 일로읍(농지)▶ 감정가 3억8천 -> 1억3천 (12/20) 장성군 황룡면(주택)▶ 감정가 4억1천 -> 2억9천 (1/5)</td> </tr> <tr> <td>시외</td> <td>전북 군산시(근린상가)▶감정가 2억7천 -> 6천5백(12/27) 경남 창원시(근린상가)▶감정가 40억 -> 13억 (1/13)</td> </tr> </table> <p>062-382-5500</p>	광주	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감정가 8억3천 -> 3억7천 (12/21) 남구 월산동(주택)▶감정가 3억5천 -> 2억 (12/21) 서구 쌍촌동(아파트)▶감정가 2억5천 -> 1억1천 (12/21) 북구 두암동(상가건물)▶감정가 4억2천 -> 2억9천 (12/29) 광산구 삼거동(임야)▶감정가 3억9천 -> 2억7천 (12/29) 서구 농성동(근린주택)▶감정가 8억1천 -> 4억5천 (1/12) 동구 계림동(근린주택)▶감정가 6억 -> 4억2천 (1/12)	전남	목포시 상동(잡종지)▶ 감정가19억 -> 8억5천 (12/13)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감정가 2억1천 -> 7천6백 (12/16) 무안군 일로읍(농지)▶ 감정가 3억8천 -> 1억3천 (12/20) 장성군 황룡면(주택)▶ 감정가 4억1천 -> 2억9천 (1/5)	시외	전북 군산시(근린상가)▶감정가 2억7천 -> 6천5백(12/27) 경남 창원시(근린상가)▶감정가 40억 -> 13억 (1/13)
광주	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감정가 8억3천 -> 3억7천 (12/21) 남구 월산동(주택)▶감정가 3억5천 -> 2억 (12/21) 서구 쌍촌동(아파트)▶감정가 2억5천 -> 1억1천 (12/21) 북구 두암동(상가건물)▶감정가 4억2천 -> 2억9천 (12/29) 광산구 삼거동(임야)▶감정가 3억9천 -> 2억7천 (12/29) 서구 농성동(근린주택)▶감정가 8억1천 -> 4억5천 (1/12) 동구 계림동(근린주택)▶감정가 6억 -> 4억2천 (1/12)							
전남	목포시 상동(잡종지)▶ 감정가19억 -> 8억5천 (12/13)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감정가 2억1천 -> 7천6백 (12/16) 무안군 일로읍(농지)▶ 감정가 3억8천 -> 1억3천 (12/20) 장성군 황룡면(주택)▶ 감정가 4억1천 -> 2억9천 (1/5)							
시외	전북 군산시(근린상가)▶감정가 2억7천 -> 6천5백(12/27) 경남 창원시(근린상가)▶감정가 40억 -> 13억 (1/13)							